

다이와보 - 리스크 분산과 수출 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거점 마련

다이와보 국제 개발부는 중국, 인도네시아 이외의 나라에 새로운 봉제 거점을 빨리 마련한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는 외환 시세의 변동이나 중국의 위엔(元) 절상 등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국제 개발부가 겨냥하는 글로벌 전개를 최적화하여, 구미·동남아 등에서의 수출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

새로운 봉제 거점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미 한 곳에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2004년 11월부터 가동한 쑤저우다이와침직복장(蘇州大和針織服裝)의 제3공장에서 파자마 봉제품의 생산이 궤도에 오르면 착수할 구상이라고 한다. 새로운 거점에서는 2004년 9월에 설립한 중국의 제직·염색이 일관된 합판 기업 “칭다오즉발용산염색(靑島卽髮龍山染色)”이나 인도네시아의 “프리마 텍스코” 등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한다. 다만 일본으로부터 소재를 가져오는 것은 거리적으로 너무 멀다고 보고 있다.

3개국 간 수출의 확대도 겨냥하고 있다. 다이와보 전체의 판매고 중 3개국 간 수출을 포함한 순수출의 비율은 8~9%(상사 베이스는 제외)이며, 그 동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더욱 순수출의 비율을 늘리기 위하여 상하이 사무소를 빨리 현법화(現法化)하여 쿼터 프리에 따른 중국 시장의 개척과 중국으로부터의 구미 상대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2004년 10월에 신설한 국제 개발부는 일본 내와 해외의 제휴를 추진하여, 쌍방향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을 보좌하면서 원활하게 글로벌

로 전개하기 위하여 정보 수집에 전력을 다한다. 이제까지의 실 팔기, 생지 팔기와 같은 분단된 상거래 방식이 아니라 실·생지·2차 제품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물류도 포함한 시스템을 고객에게 제안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